

## 자원봉사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전우택 · 윤덕룡 · 강성록 · 김형중 · 민성길\*

### I. 서론

남한과 북한은 지난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상의 대립과 전쟁, 그 후의 체제 경쟁 등 극단적인 갈등관계에 있어왔다. 이 기간 중 남북한 사람들의 교류는 완전히 단절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남북한 사람들의 이질화와 그에 따른 이질감이 가장 심각한 통일의 장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sup>1)</sup>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여야 하는 이 시점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그러한 이질화와 이질감을 극복하고 서로 조화롭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관계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색의 구체적 노력은 극히 힘든 상황에 있다. 이러한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1) 전우택,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 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 방안,"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 적응 개선 방안. (1999), pp. 40-64.;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a); 이화수, 『통일 한국의 정치심리학-남북한간 인성 통합을 위하여』 (서울: 나남출판, 1999).

가운데, 제한적이거나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이다.

1990년대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탈북자들은 이제 그 숫자가 1,400명을 넘어서고 있다.<sup>2)</sup> 이들 탈북자들은 북한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이지만, 북한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살아온 사람들로써 남한 사회에 들어와 남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고, 훨씬 자유롭게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왔다.<sup>3)</sup>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면담이나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공통된 특징은 '탈북자의 시각'에서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 경험과 양상을 조사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적응이라는 것은 양

- 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통계』 (서울: 통일부, 2001).
- 3) 김명세, "탈북자의 사회 적응은 민족 화합의 예비과정," 탈북자들의 남한 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토론회(1996); 김병로,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정책 자료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민성길·전우택,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기념 심포지움 논문집 『통일 사회로 가는 길』 (1995);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서강대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1995); 윤덕룡·강대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1권 2호(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pp. 169-220;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전우택, "통일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난민, 한국인 이민자, 북한 귀순자를 중심으로," 통일원 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1995), pp. 1-66;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설, "북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1) (1997), pp. 145-161; 제성호, "북한 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7권 1호(1996).

방향적인 것이다. 즉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와 사람들을 경험하며 그들에 적응하는 것처럼, 남한 사람들 역시 탈북자들을 경험하며 그들에 적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는 ‘탈북자들의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렇게 ‘남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극히 적었다. 그 이유는 첫째, 탈북자들의 수가 아직은 적어 탈북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남한 사람들의 수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둘째, 탈북자들을 우연히 한두 번 만나 이야기를 해본 남한 사람들의 수는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계속하여 만나면서 그들에 대한 경험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남한 사람들의 수는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 몇몇 남한 사람들 집단은 탈북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데, 탈북자들의 보호 임무를 맡은 경찰관들과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이들 남한 집단들의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남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분석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계획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 첫 번째로 탈북자 보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었고,<sup>4)</sup> 본 연구는 그 두 번째로 비정부기구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의 자원봉사자들

- 4) 전우택, “통일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까?-남북한 사회 통합 방안.”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심포지움,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되는 길-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2000b).
- 5) 전우택,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 보호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4권 1호(2000c), pp. 21-64.

은 탈북자들과 갖는 관계의 성격에서 앞서 연구한 보호 경찰관들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즉 보호 경찰관들이 공적인 책임에 따라 탈북자들을 만난 것에 비하여,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민간인으로서 자발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자발성”은 자원봉사자 자신들이 탈북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자원봉사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자원 봉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보호 경찰관들의 경험에 대한 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바라보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향후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북한 출신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과 하나의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탈북자들을 만나서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향후 이러한 민간인들이 북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는 남한 민간인 자원 봉사자(이하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현재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25개 민간단체 중 자원봉사자 활동 등을 통하여 탈북자 지원을 하고 있는 7개 단체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단체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수만큼의 자원봉사자용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그 후 단체의 대표자는 자기 단체에 소속된 봉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 수거하여 본 연구팀에게 보냈다. 배부된 설문지는 7개 단체에 총 125장이었고 이 중 회수된 것은 83장으로 회수율은 66.4%였다. 각 단체별로 보면 시민연합에서 32명(38.6%), 한기총에서 23명(27.7%), 평북협에서 10명(12.0%), 한민족복지재단에서 7명(8.4%), 회년상담소에서 6명(7.2%), 인성개발원에서 3명(3.6%),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2명(2.4%)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설문 내용은 봉사자와 지원 탈북자의 인구학적 특징(연령, 성별, 종교, 학력, 탈북자의 경우에 탈북 연도, 탈북 과정 등), 지원 기간 (1~3개월은 단기, 4~12개월은 중기, 12개월 이상은 장기로 구분하였다), 지원 기간 중 어려웠던 점, 지원한 탈북자에게 호감이 가는 특징과 호감가지 않는 특징, 그리고 봉사자가 느낀 탈북자와의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였다. 여기서 인간관계의 평가는 5점 척도("매우 적대적"이 1점, "약간 적대적"이 2점, "보통"이 3점, "약간 호의적"이 4점, "매우 호의적"이 5점)로 표시하게 하였다. 솔직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설문 응답은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였다. 통계 분석은 t-test와 chi-square test, ANOVA test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 III. 결 과

#### 1. 자원봉사자의 특징에 따른 인간관계 평점 <표 1>

##### 1) 성별

현재 지원하고 있는 탈북자와의 인간관계를 '매우 적대적'(1점)에서부터 '매우 호의적'(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을 때, 그 평점 평균을 보면 남자는 3.68, 여자는 3.5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자 봉사자들이 탈북자들과 더 좋은 인간관계를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p=.064$ ). 그러나 주목할 점은, 지원하고 있는 탈북자와 관계를 맺은 기간에 따라 단기(1~3개월), 중기(4~12개월), 장기집단(13개월 이상)으로 나누었을 때, 중기 집단과 장기 집단에서는 남성 봉사자와 여성 봉사자의 관계 평점 평균이 거의 비슷하였지만, 단기 집단에서는 남성의 경우 4.00, 여성은 2.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큰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남성 봉사자에 비해 여성 봉사자들이 탈북자 지원 초기에 인간관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2) 연령

자원봉사자들을 20대 이하, 3·40대, 50대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연령대에 따른 인간관계 평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단기(1~3개월), 중기(4~12개월), 장기(13개월 이상)의 세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20대 봉사자는 그 평균이 각각 3.58, 3.98, 3.00으로 세 기간에 걸쳐 점수 변화가 큰 반면에, 50대 이상 봉사자들은 각각 3.75, 3.75, 3.51로 점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50대 이상의 봉사자들이 탈북자들과 비교적 일관성 있고 안정된 인간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장기 집단에 속하는 봉사자들을 보면, 20대는

2명으로 20대 전체의 7.1%, 3·40대는 14명으로 42.4%, 50대 이상은 13명으로 61.9%인 것으로 나타나 50대 봉사자들이 비교적 장기적인 봉사를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 3) 자원봉사자의 탈북자와의 만남 횟수

봉사자들을 담당 탈북자와 접촉한 빈도에 따라 구분해 보았을 때, 집단간에 인간관계 평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 $F_{4,75}=2.804, p<.05$ ), 사후 검증 (post hoc test) 결과, 주 1~2회 만났던 집단(평균 3.79)과 월1~2회를 만났던 집단(3.97)이 부정기적으로 만났던 집단(3.04)보다 그 평점 평균이 높았다. 단기, 중기, 장기의 세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월 1~2회 만났던 집단은 단기에서 4.40, 중기에서 3.67, 장기에서 3.56으로, 관계 평점의 평균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매일 만났던 집단은 단기 3.50, 중기 3.71, 장기 3.83으로 지원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 평점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 1, 2회를 만난 사람들은 평점 평균이 단기에서 3.67, 중기에서 4.00, 장기에서 3.37로 나타나 중기 때에 가장 높은 관계 평점을 보였다. 이 결과는 종합해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규칙적으로 자주 만나는 것이 탈북자와 봉사자 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관계 초기에는 자주 만나는 것보다 월 1, 2회 정도로 만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봉사자들은 대부분, 초기에는 탈북자와의 만남이 잦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만남이 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법보다는 초기에는 적게 만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규칙적으로 자주 만나는 것이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 4) 사전 준비 정도

봉사자들이 탈북자 지원업무에 대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매우 충분”, “어느정도 충분”, “별로 충분치 못함”, “매우 충분치 못

함” 중 하나로 평가하도록 했을 때, 이 사전준비 정도에 따라 인간관계 평점을 분석해 보면, 사전준비가 매우 충분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평균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충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집단은 3.44로 가장 낮았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사전 준비가 충분할수록 그들이 지원하게 될 탈북자들과 좀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봉사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2. 봉사자가 경험한 어려움

봉사자들에게 지금까지 탈북자들을 지원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두 가지씩 적도록 하였을 때 그 결과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불안과 불신 (34명, 41.0%): 탈북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믿지 못하여 근본적인 인간관계 형성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2) 심리적인 부적응 (19명, 22.9%):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힘들어하고, 적응하려는 의욕도 점차 잃어가며 우울해 할 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알 수 없어 어려웠다고 한다.

(3) 의식과 문화적인 차이 (17명, 20.5%): 생각하고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등에서 탈북자들과 큰 차이를 느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4) 경제적 문제 (10명, 12.0%): 탈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어려웠다고 한다.

(5) 이기주의 (10명, 12.0%): 탈북자들이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돈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돈에 대하여 매우 이기주의적 태도를 보일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

(6) 자립의지의 부족 (6명, 7.2%): 탈북자들이 경제적으로 주위의



도움에만 의지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을 돕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7) 접촉의 어려움 (5명, 6.0%): 탈북자들이 봉사자나 다른 남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회피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8) 기타 (42명, 50.6%)

이러한 어려움의 내용을 봉사자의 연령에 따라 분석했을 때,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번째로, “불안과 불신”을 20대에서는 53.6%(15명)가 어려운 점으로 꼽았으나, 50대 이상에서는 33.3%(7명)만이 언급하였다. 즉 나이가 많은 봉사자들일수록 이러한 불신의 문제를 덜 심각하게 느낀 것으로 보고했다. 이것은 이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탈북자들을 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탈북자들 역시 봉사자의 나이가 많을 때 좀더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불안과 불신의 태도를 적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두번째로, 심리적인 부적응을 어려웠던 점으로 지적한 경우는 20대에서는 10.7% (3명)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50대에서는 47.6%(10명)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것은 젊은 봉사자들보다 나이든 봉사자들이 탈북자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17명(20.5%)이 언급한 “의식과 문화적 차이”는 봉사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사전 준비 정도와 연관이 있었다. 즉 “사전 준비가 충분하였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는 의식과 문화의 차이를 문제로 지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0명, 0%), “어느 정도 충분하였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는 12.9%(4명), “별로 충분치 못하였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는 28.9% (11명), “매우 충분치 못하였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는 22.2% (2명)가 의식과 문화의 차이를 어려움으로 언급하였다. 따라서 자원 봉사자들의 사전 교육이 충분할수록 탈북자들과의 의식, 문화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탈북자들의 호감가는 특징 및 호감가지 않는 특징

자원봉사자들이 탈북자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특징들을 보면 (표3), “인간적인 정이 있다”(30명, 36.1%)와 “예의바르다” (30명, 36.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격이 적극적이다” (24명, 28.9%), “의지력이 강하다” (17명, 20.5%), “소박하고 검소하다” (14명, 16.9%) “침착하다” (4명, 4.8), 기타 (13명, 15.7%) 등이었다.

반면, 호감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특징으로는 (<표 4>), 탈북자들의 “비타협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29명, 34.9%)와 “의존적이고 독립하려는 의지의 부족”(28명, 33.7%)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이어서 탈북자들의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와 이기주의”(18명, 21.7%), “적극적으로 인간관계 맺는 것의 회피” (16명, 19.3%), “남성 우월주의적인 태도” (12명, 14.5%), “낭비하는 태도” (6명, 7.2%) 등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호감가지 않는 특징으로 가장 많이 꼽힌 “비타협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20대 봉사자들로부터는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반면(16명, 57.1%), 50대 이상의 봉사자의 경우에는 단 1명 (4.8%)에게서만 지적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탈북자들이 대부분 3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20대의 봉사자들에게는 때로 공격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한 데 비하여, 50대의 자원 봉사자들에게는 나이 차이에 따라 비교적 순종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비타협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에 20대 봉사자들은 예민하게 생각하며 대처하는 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 50대 이상의 봉사자들은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이를 잘 극복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 4. 봉사자를 위한 사전 교육

봉사자들에게 탈북자 지원 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하

였는지 스스로 평가하게 하였을 때, 전체 봉사자 중 6.0% (5명)만이 사전 준비가 “매우 충분하였다”라고 답하였고, 37.3%(31명)가 “어느 정도 충분하였다”라고 답하였으며, 45.8% (38명)는 “별로 충분하지 못하였다”, 10.8% (9명)는 “매우 충분치 못하였다”라고 답하였다. 다시 말하면, 전체 봉사자 중 56.6%가 자신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봉사자 역할을 하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봉사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인간관계 평점에 대한 분석에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고 느낀 봉사자일수록 탈북자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전교육이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봉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전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제시된 주요 의견들이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까지 지원한 탈북자의 수에 따라 봉사자들을 구분하였을 때, 지원한 탈북자의 수가 많은 봉사자일수록 “탈북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방법”,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많이 응답한 반면에, 지원한 탈북자의 수가 적은 봉사자들은 상대적으로 “탈북자들에게 남한사회를 이해시키는 방법”을 교육받으면 좋겠다고 많이 응답한 점이다. 즉 탈북자 지원 경험이 적은 봉사자들은 탈북자들에게 막상 남한 사회에 대해 설명할 때 남한 사회의 어떤 모습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원경험이 많은 봉사자들은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탈북자들의 상황을 좀더 이해하고 그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 준비 정도에 따라서도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사전 준비가 “매우 충분했다”라고 평가한 봉사자들의 경우 80%(4명)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한 반면, “어느 정도 충분했다”, “별로 충분치 못했다”라고 평가한 봉사자들의 경우에는 각각 22.6%(7명)와 21.1%(8명)만이 그러한 응답을 하였고, “매우 충분치 못했다”라고 평가한 봉사자들 중에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비해 “탈북자들에게 남한사회를 이해시키는 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가 “매우 충분치 못했다”라고 평가한 봉사자들의 77.8%(7명)가 그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매우 충분했다”라고 느낀 봉사자들 중에서는 1명(20.0%)만이 그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경험이 풍부하거나 사전준비가 충분했던 봉사자들일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전교육으로 “탈북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방법”,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등을 많이 언급한 반면, 경험이 많지 않거나 사전준비가 불충분했던 봉사자들일수록 “탈북자들에게 남한사회를 이해시키는 방법”을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봉사자들을 위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5. 봉사자의 탈북자에 대한 고용 여부 의견

“만일 귀하가 한 회사의 사장이라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탈북자를 귀하의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62.7%(52명)가 “고용하겠다”, 13.3%(11명)가 “고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했으며, 19.3%(16명)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표 6>). 탈북자를 고용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의 38.5%(20명)가 “직업 수행 능력이 있어서”라는 이유를, 51.9%(27명)가 “탈북자들을 돕고 싶어서”라는 이유를 선택하였다(<표 7>).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고용 이유에서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컸다는 점이다. 탈북자들이 “직업 능력이 있어서” 고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20대는 46.4%(13명), 30, 40대는 15.2%(5명), 50대는 9.5%(2명)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

이 낮았다. 즉 봉사자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탈북자들의 직업 수행 능력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적 위치로 볼 때 실제로 탈북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대보다는 주로 50대나 3·40대인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결과는 탈북자 고용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탈북자들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봉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를 보면,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할 의지의 부족” (5명)이 가장 많았으며, “서로 이해하기 어려워”(2명), “직업 능력 부족” (2명) 등이 언급되었다.

정리하면, 탈북자들을 고용하려는 이유로 직업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보다도, 탈북자들을 돕고 싶어서라는 대답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고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일할 의지의 부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탈북자들에 대한 직업 교육이 실제적인 직업 기술 연마와 일하려는 의지 고취의 양 방향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탈북자 지원 경험이 많은 봉사자일수록 탈북자의 고용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지원한 탈북자 수에 따라 봉사자들을 구분했을 때, 탈북자를 고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고용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지원 탈북자 수가 1~2명인 경우에는 56.1% (23명), 3~5명인 경우에는 62.5% (10명), 6~10명인 경우에는 77.8%(7명),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90%(9명)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 이유에 대해서도 탈북자들이 직업 수행 능력이 있어서라고 대답한 봉사자들이, 지원 명수가 1~2명인 경우에는 34.8% (8명), 3~5명 일 경우에는 50% (5명), 6~10명인 경우에는 57.1% (4명)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봉사자들이 탈북자들을 더 깊이 알게 될수록 그들을 고용하는 데 더 적극적이며 탈북자들의 직업 수행 능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탈북자 고용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문제는 현재 탈북자들의 직업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장기적인 안

목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탈북자들이 직장에서 제대로 일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 6. 봉사 활동에 따른 생각의 변화와 추후 지원 여부

<표 8>에 보이듯, 응답자의 64.0%(48명)가 지원 경험을 통하여 탈북자에 대한 생각이 변하였다고 답하였으며, 36.0%(27명)는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생각이 변하였다고 응답한 봉사자의 다수(62.5%, 30명)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하였다. 봉사자들에게 앞으로 탈북자들의 적응을 돕는 일을 할 기회가 다시 생겼을 때 그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봉사자들의 대부분인 83.3%(65명)가 “돕겠다”는 응답을 보였고, “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1.2%)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15.4%(12명)였다. 이 결과는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탈북자 지원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IV. 토 론

본 연구는 탈북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자원봉사자들이 탈북자를 지원하면서 겪은 여러 경험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미 있게 나타난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민간 자원봉사자들은 공무원들이나 보호경찰관들과는 다른 입장과 역할을 가지고 탈북자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 결과 자원봉사자들은 경찰관과는 매우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경찰관들은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에서부터 직업을 구하는 일까지 그야말로 전체적인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아 탈북자와의 인간관계 평점이 평균 2.97로<sup>6)</sup> 본 연구에서의 봉사자들의 평균 3.61보다 훨씬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공무원이나 경찰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 맡고 있는 역할 등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및 민간단체들은 공무원, 경찰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좀더 명확히 구분해 주어 그들이 각자의 입장에 맞는 역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번째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충분하고 체계적인 사전교육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반 이상이 스스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고, 탈북자와의 인간관계 분석에서도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봉사자들일수록 그 관계 평점이 나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탈북자 지원을 위해 봉사자를 위한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전 교육의 내용으로는, 사전 준비가 충분하거나 지원경험이 많은 봉사자들은 “탈북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방법”,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등을 지적하였고, 사전 준비가 불충분하거나 지원경험이 많지 않은 봉사자들은 “탈북자들에게 남한사회를 이해시키는 방법”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전 교육 프로그램이 봉사자들의 봉사경험 등 그들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각 민간 단체별로 할 수도 있겠으나 공통된 내용의 교육은 여러 단체가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봉사 초기에 여성 봉사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특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구 결과, 남성 봉사자들에 비해 여성 봉사자들이 지원 초기에 탈북자들과의 인간관계

6) 전우택,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 보호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4권 1호 (2000c), pp. 21-64.

에서 더 어려워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것은 실제로 그 관계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인간관계에서 더 섬세한 친밀감을 기대하기 때문에 관계 초기의 어색함에 대하여 남성 봉사자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느껴서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여하튼,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이러한 '특수한' 어려움에 대해서 여성 봉사자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등을 통한 준비가 필요함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네번째로, 사회경험이 풍부한 50대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탈북자 민간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50대 봉사자들은 큰 기복 없이 탈북자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일단 한번 봉사를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지원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탈북자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인 "불안과 불신"을 가장 적게 경험하고, 탈북자들의 호감가지 않는 특징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타협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을 가장 덜 느끼는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50대의 사람들이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움직이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들이 봉사자로서 많은 장점을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지원단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문제를 지원 단체들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번째로, 자원봉사자들이 탈북자들을 지원할 때, 점차로 만나는 횟수를 늘려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분석 결과, 월 1~2회 만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짧을 때 관계 평점이 가장 높다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게 나타났고, 매일 만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길수록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지원 초기에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월 1, 2회 정도 만나다가, 서로를 알아갈수록 점차 접촉 기회를 늘려 규칙적으로 자주 만나는 것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여섯번째로, 본 연구결과는 탈북자 고용문제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은 경찰이나 공무원들에 비해 좀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고용주일 경우 대부분 현재 지원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고용하겠다고 응답했으며(62.7%, 52명), 고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은 13.3%(11명)에 그쳤다. “고용하지 않겠다”(61%, 154명)가 “고용하겠다” (27.9%, 70명)보다 훨씬 많았던 경찰관들<sup>7)</sup>에 비해 민간자원봉사자들은 탈북자의 고용에 대해 훨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탈북자에 대한 지원 경험이 풍부한 봉사자일수록, 탈북자들을 고용하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고용 이유에 대해서도 단순히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용능력이 있어서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탈북자들을 깊이 알수록 탈북자 고용과 그들의 직업 수행 능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돕고 싶어서” 고용하겠다는 의견이 “직업능력이 있어서”라고 답한 경우보다 많았고, 특히 실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50대나 3·40대의 봉사자들의 경우에 “직업 능력이 있어서”를 고용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무척 낮았다는 사실은 탈북자들의 직업 수행능력을 높이는 종합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일하려는 의지의 부족”이 많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탈북자들의 자립의지를 높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곱번째로, 탈북자들의 심리적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원 봉사자들은 탈북자들을 도우면서 느낀 어려움으로 탈북자들의 “불안과 불신”을 가장 많이 꼽았다. 따라서 이런 “불안과

7) 전우택,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 보호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4권 1호 (2000c), pp. 21-64.

불신”을 잘 극복하는 것이 탈북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불안과 불신”은 낯선 사람들끼리 처음 만난 것이므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탈북자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만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즉 탈북자들은 끊임없이 타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이들이므로 익숙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극적인 어려움 속에서 남한에 들어온 사람들이므로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일단은 조심하고, 의심하는 태도가 생존 본능처럼 있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탈북자들의 상황을 이해할 때 탈북자들이 나타내는 불안과 불신의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충분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번째로, 본 설문에서 나타난 탈북자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특징과 호감을 가지지 않게 되는 특징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자들이 탈북자들에게 호감가는 특징으로 인간적인 정, 예의, 적극적 성격, 강한 의지력 등을, 호감가지 않는 특징으로 비타협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의존적 태도, 돈에 집착하는 태도 등을 꼽았는데, 이러한 특징들의 내용과 이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탈북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봉사자들이 탈북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호감가지 않는 특징들은 봉사자들이 탈북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불안과 불신의 문제에서 언급했듯이, 탈북자들은 극적인 어려움 속에서 북한을 탈출해 모든 것이 낯선 남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침착하게 주변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급박한 처지와 필요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측면이 비타협적이고 공격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존적인 태도 역시, 북한에서 익힌 지식과 기술로는 남한에서 직장을 구하기가 매우 힘든 현실 상황에서 생존을 해결하여야 하는 그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좀더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필요가 급박하고 안정적인 미래가 불투명하며, 남한 사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눈앞의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탈북자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적응을 돕는 입장에서 그들의 문제점을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것은 옳은 자세라 할 수 없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좀더 이해하고,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보다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는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중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협의체에 가입되지 않고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로, 본 연구가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첫번째 제한점과 연관된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협의체에 가입된 단체들이 모두 수도권에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고 따라서 지방에서 탈북자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수도 극히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각 단체들에게 일임한 점이 있다. 이것은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자신들의 활동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었다. 따라서 실제로 전체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설문지 회수율도 66.4%로 높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각 단체들이 좀더 자신들의 상황을 외부에 드러내고, 공동으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동 활동을 하는 데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고 있는 비정부기구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이후 탈북자 지원 활동이 좀더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봉사자들의 경험 분석이 통일 과정과 그 이후에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신 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표 1〉 자원봉사자의 특징에 따른 인간관계 평점

자원봉사자 특징	전 체		단기집단*		중기집단*		장기집단*	
	수(%)	평점 표준 편차	수(%)	평점 표준 편차	수(%)	평점 표준 편차	수(%)	평점 표준 편차
성별								
남성	48(58.5)	3.68 .74	10(20.8)	4.00 .94	16(33.3)	3.91 .49	22(45.8)	3.38 .71
여성	34(41.5)	3.51 .99	8(23.5)	2.96 1.28	19(55.9)	3.82 .80	7(20.6)	3.29 .85
연령								
20대 이하	28(34.1)	3.80 .92	8(28.6)	3.58 1.18	18(64.3)	3.98 .78	2(7.1)	3.00 .94
30~40대	33(40.2)	3.46 .89	6(18.2)	3.33 1.37	13(39.4)	3.73 .56	14(42.4)	3.26 .91
50대 이상	21(25.6)	3.60 .65	4(19.0)	3.75 1.26	4(19.0)	3.75 .50	13(61.9)	3.51 .46
담당 탈북자와 접촉 정도								
매일	11(13.8)	3.70 .84	2(18.2)	3.50 2.12	7(63.6)	3.71 .64	2(18.2)	3.83 .24
주당 1~2회	37(46.3)	3.79 .75	7(18.9)	3.67 .94	21(56.8)	4.00 .72	9(24.3)	3.37 .48
월당 1~2회	11(13.8)	3.97 .88	5(45.5)	4.40 .55	3(27.3)	3.67 .76	3(27.3)	3.56 1.35
부정기적	14(17.5)	3.04 .95	1(7.1)	1.00 -	4(28.6)	3.63 .48	9(64.3)	3.00 .83
거의 없음	7(8.8)	3.38 .80	2(28.6)	2.50 .71	1(14.3)	4.00 -	4(57.1)	3.67 .61
사전 준비 정도								
매우 충분	5(6.0)	3.75 1.24	0(0)	- -	3(60.0)	4.03 .06	2(40.0)	3.33 2.36
어느정도 충분	31(37.3)	3.62 .73	6(19.4)	3.83 .98	11(35.5)	3.77 .65	14(45.2)	3.40 .67
별로충분치못함	38(45.8)	3.65 .77	6(15.8)	3.28 1.00	20(52.6)	4.00 .69	12(31.6)	3.25 .51
매우충분치못함	9(10.8)	3.44 1.36	6(66.7)	3.50 1.64	2(22.2)	3.00 .71	1(11.1)	4.00 -

\* 기간 분류: 단기: 1~3개월, 중기: 3~12개월, 장기: 12개월 이상 자원 봉사를 한 경우.

〈표 2〉 연령대별로 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한 지원상의 어려움\*

내 용	수 (%)			
	전체 (83명)	20대 이하 (28명)	3·40대 (33명)	50대 이상 (21명)
불안과 불신	34 (41.0)	15 (53.6)	12 (36.4)	7 (33.3)
심리적인 부적응	19 (22.9)	3 (10.7)	6 (18.2)	10 (47.6)
의식과 문화적인 차이	17 (20.5)	3 (10.7)	8 (24.2)	5 (23.8)
경제적 문제	10 (12.0)	1 (3.6)	4 (12.1)	5 (23.8)
이기주의	10 (12.0)	3 (10.7)	6 (18.2)	1 (4.8)
자립의지의 부족	6 (7.2)	2 (7.1)	1 (3.0)	3 (14.3)
접촉의 어려움	5 (6.0)	1 (3.6)	4 (12.1)	0 (0.0)
기타	42 (50.6)	15 (53.6)	15 (45.5)	12 (57.1)

\* 1인당 2개씩 응답하도록 한 것임.

〈표 3〉 연령대별로 자원봉사자들이 탈북자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탈북자 특징

내 용	수 (%)			
	전체 (83명)	20대 이하 (28명)	3·40대 (33명)	50대 이상 (21명)
인간적인 정이 있다	30 (36.1)	15 (53.6)	11 (33.3)	4 (19.0)
예의 바르다	30 (36.1)	11 (39.3)	11 (33.3)	8 (38.1)
성격이 적극적이다	24 (28.9)	7 (25.0)	9 (27.3)	8 (38.1)
의지력이 강하다	17 (20.5)	7 (25.0)	7 (21.2)	3 (14.3)
소박하고 검소하다	14 (16.9)	2 (7.1)	5 (15.2)	7 (33.3)
침착하다	4 (4.8)	3 (10.7)	1 (3.0)	0 (0.0)
기타	13 (15.7)	5 (17.9)	3 (9.1)	5 (23.8)

〈표 4〉 연령대별로 자원봉사자들이 탈북자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는 탈북자 특징

내 용	수 (%)			
	전체 (83명)	20대 이하 (28명)	3·40대 (33명)	50대 이상 (21명)
비타협적이고 공격적이다	29 (34.9)	16 (57.1)	12 (36.4)	1 (4.8)
의존적이고 독립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28 (33.7)	8 (28.6)	12 (36.4)	8 (38.1)
물질만능주의적 태도와 이기주의가 강하다	18 (21.7)	2 (7.1)	12 (36.4)	14 (66.7)
적극적으로 인간관계 맺는 것을 회피한다	16 (19.3)	4 (14.3)	5 (15.2)	7 (33.3)
남성우월주의적 태도가 있다	12 (14.5)	8 (28.6)	3 (9.1)	1 (4.8)
낭비하는 태도가 있다	6 (7.2)	0 (0.0)	1 (3.0)	5 (23.8)
기타	21 (25.3)	6 (21.4)	9 (27.3)	6 (28.6)

〈표 5〉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전 교육 내용

내 용	수 (%)
탈북자들에게 남한사회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방법	56 (67.5)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19 (22.9)
직업문제 해결을 돕는 방법	17 (20.5)
탈북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방법	16 (19.3)
탈북자들에게 영어나 한문 등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방법	16 (19.3)

〈표 6〉 자원봉사자들의 탈북자 고용 의도

내 용	수 (%)							
	전체 (79명)	연령			지원한 탈북자 수			
		20대 이하 (27명)	30대 (30명)	40대 이상 (21명)	1~2명 (41명)	3~5명 (16명)	6~10명 (10명)	11명 이상 (10명)
고용하겠다	52(65.8)	19(70.4)	19(63.3)	14(66.7)	23(60.5)	10(62.5)	7(77.8)	9(90.0)
고용하지 않겠다	11(13.9)	1(3.7)	5(16.7)	4(19.0)	5(13.2)	4(25.0)	1(11.1)	0(0.0)
잘 모르겠다	16(20.3)	7(25.9)	6(20.0)	3(14.3)	10(26.3)	2(12.5)	1(11.1)	1(10.0)

〈표 7〉 자원봉사자들의 탈북자 고용 의도 이유

내 용	수 (%)							
	전체 (79명)	연령			지원한 탈북자 수			
		20대 이하 (19명)	30대 (19명)	40대 이상 (14명)	1~2명 (23명)	3~5명 (10명)	6~10명 (7명)	11명 이상 (10명)
직업수행능력이 있어서	20(38.5)	13(68.4)	5(26.3)	2(14.3)	8(34.8)	5(50.0)	4(57.1)	2(22.2)
돕고 싶어서	27(51.9)	4(21.1)	12(63.2)	11(78.6)	11(47.8)	5(50.0)	2(28.6)	7(77.8)
기타	5(9.6)	2(10.5)	2(10.5)	1(7.1)	4(17.4)	0(0.0)	1(14.3)	0(0.0)

〈표 8〉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경험 후 탈북자들에 대한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여부	수 (%)	변화 방향	수 (%)
변했다	48(64.0)	긍정적	30(62.5)
		부정적	12(25.0)
		기타/무응답	6(12.5)
변하지 않았다	27(36.0)		



참고 문헌

- 김명세. “탈북자의 사회 적응은 민족 화합의 예비과정.” 탈북자들의 남한 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토론회. 1996.
- 김병로.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정책 자료.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민성길·전우택.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기념 심포지움 논문집- 통일 사회로 가는 길. 1995.
- 박종철·김영운·이우영.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서강대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1995.
- 윤덕룡·강태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1권 2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1994.
- \_\_\_\_\_. “남한의 귀순동포에 대한 정책 연구.” 『영남정치학회보』 제5호. 1995.
-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이종훈. “남한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현안분석 119호. 국회입법조사분석실, 1996.
- 이화수. 『통일 한국의 정치심리학-남북한간 인성 통합을 위하여』 서울: 나남출판, 1999.
- 전우택. “통일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난민, 한국인 이민자, 북한 귀순자를 중심으로.” 통일원 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1995.

- \_\_\_\_\_.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 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과  
정에서의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36(1). 1997a.
- \_\_\_\_\_.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권 2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b.
- \_\_\_\_\_.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 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  
방안.”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 적  
응 개선 방안. 1999.
- \_\_\_\_\_.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으뜸, 2000a.
- \_\_\_\_\_. “통일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까?-남북한 사회 통합 방  
안.”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심포지움.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되는 길-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2000b.
- \_\_\_\_\_.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 보호경찰관  
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4권 1호.  
2000c.
- 전우택 · 민성길 · 이만홍 · 이은설. “북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  
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1). 1997.
- 제성호. “북한 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연구』 7권 1호. 1996.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통계』 서울: 통일부, 2001.

Abstract

---

## Experience of South Korean NGO volunteers in helping North Korean defectors

Woo Taek Jeon\*, Duk Ryong Yoon, Sung Rok Kang,  
Hyung Joong Kim, Sung Kil Min

(The Institute for Korean Unification Studies, Yonsei University)

**Objectives:** Since 1994,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escaping North Korea and entering South Korea, has increased rapidly. The Government has provided most of the support for the defectors' adaptation to their new society. But as the number of defectors has increased, and the support needs have become more various, the support of volunteers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has become very important. To raise the level of the success and effectiveness of the support from the volunteers, their experiences were surveyed and analyzed.

**Methods:** This study surveyed 83 volunteers of 7 NGOs involved in helping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 48 men and 34 women.

**Results:** In their relationships with defectors, women volunteers have more difficulties in their first 3 months. However volunteers in their 50s and 60s tend to have more stable and better relationships with defectors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than younger volunteers. Many volunteers stated experiences of human difficulties with defectors, for example, mistrust and anxiety in human relationship (n=34, 41.0%), psychological maladjustment (n=19, 22.9%), different ways of thinking and culture (n=17, 20.5%), economic difficulties (n=10, 12.0%), and lack of independence spirit (n=6, 7.2%). The volunteers said they have feelings of goodwill toward defectors when defectors showed warm heart (n=30, 36.1%), politeness (n=30, 36.1%), positive and active character (n=24, 28.9%), strong will (n=17, 20.5%), and plainness (n=14, 16.0%). The volunteers stated an absence of goodwill feelings to defectors when defectors showed uncompromising and aggressive attitudes (n=29, 34.9%), lack of independent will (n=28, 33.7%), selfishness (n=18, 21.7%), and avoidance of making human relationship (n=16, 19.3%). As for adequate training before commencing activity, 5 volunteers (6.0%) said they had received enough education before their activity, 31 (37.3%) relatively enough, 38 (45.8%) relatively not enough, and 9 (10.8%) absolutely not enough education. If they were the owners of a company, 27 volunteers (51.9%) said they would want to hire defectors even if the defectors did not have the required ability.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NGO's volunteers have a friendlier attitude to defectors than policemen in charge and public officials, which is their strong point. Women volunteers experience more difficulties in their early relationships with defectors, suggesting the need for a specific pre-education program for women volunteers. Furthermore, NGOs would benefit from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volunteers in their 50's and 60's. Both volunteers and defectors need to understand each other to a deeper extent and the characteristics to which South Korean volunteers feel goodwill need to be used in their education.